



肝癌의 原因

肝炎바이러스 地域따라 달라

지역에 따라 肝癌(HCC : hepatocellular carcinoma)을 일으키는 주요한 간염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의 Lancet紙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肝癌의 주요 원인이 유럽지역에서는 C형간염바이러스인데 반해 아프리카지역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美Chiron社の M. Houghton博士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Witwaterarand醫大 M.C. Kew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들은 肝癌에 걸려있는 3백80명의 아프리카흑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인 1백84명이 당시 B형간염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1백22명이 과거 이 간염에 걸린적이 있었던 환자였는데 비해 C형간염에 걸렸던 사람은 1백20명에 불과하여 간암과 B형간염 사이의 연관성을 강력히 보여 주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조군으로 설정한 1백52명을 조사해 본 결과 75명이 과거 B형간염에 걸린적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9명이 당시 이 간염에 걸려있는 환자였으며 1명만이 C형간염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전의 연구결과는 C형

간염바이러스가 肝癌과 훨씬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지역에 따라 肝癌의 원인이 되는 간염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름을 발견했다고 이들 연구팀은 밝혔다.

말기癌환자 痛症관리 위한 指針書발간계획

일본 厚生省은 최근 말기 암환자의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할 목적으로 「말기 癌 치료의 自家治療를 위해 통증관리에 사용되는 마약제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들어 「MS-콘틴」정이 개발된 것과 말기암환자의 통증치료 노우하우를 WHO나 厚生省 등에서 발표함에 따라 몰핀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취급이 불편하고 필요한 환자에게 마약이 투여되지 않거나 관리체제가 허술해지면 적절히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연구팀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의사·병원약제사 등이 ▲암환자 통증에 따른 몰핀투여법 ▲몰핀조제 ▲의료기관의 마약관리 Manual작성 ▲몰핀 제제의 적절한 투여법·혈중농도·

약물의존에 의한 문제발생과 그에 관련된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自家 또는 입원치료중인 암환자에게 물핀을 사용함에 따라 의료종사자의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약물이나 사용시기 선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WHO방식에 따른 암통증치료법에 의해 치료를 한 결과 환자의 통증이 개선 될 뿐만 아니라 의료staff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치료전체가 질적으로 향상 되었다는 것이다.

厚生省에서는 금년 여름경에 이 지침서를 의료기관에 배부하여 취급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의 주지를 철저히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용에 있어 조제·관리에 대한 매뉴얼작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매뉴얼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취급되던 마약제제가 정비되어 암으로 인한 통증의 치료에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疾患에 의한年間死亡者数 5천만명

WHO에서는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세계 총인구 50억중 1%에 해당하는 5천만명이며 이중 0.8%인 4천만명은 충분한 조기 치료를 받았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WHO는, 따라서 현재의 불충분한 의료체계가 계속되면 1990년대에는 약 2억명이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조기사망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HO가 선정한 5개 악성질환별 사망자수는 ▲심장질환자 1천2백만명 ▲콜레라·설사질환자 5백만명 ▲암환자 4백80만명 ▲폐염환자 4백90만명 ▲결핵 환자 3백만명 순으로 백신투여로, 예방을 할 수 있는 환자수는 연간 18억명이상이나 된다고 밝혔다.

日本、癌患者의 自家치료 장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부로 개정된 의료수가 개정에서 自家治療를 장려하는 정부의 강한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가운데서도 癌의 治療, 즉 환자자신이 주사를 놓는 것을 인정된 내용은 일본 自家治療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암치료제가 없으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므로 厚生省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4종류의 약을 선정하여 「30일 투여가 인정되는 주사약」을 승인하여 암치료약으로 정했다.

이 약은 의사회나 학회의견과 메이커측의 의견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의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약을 선정했다고 厚生省은 밝혔다.